

東洋의發明

그 뿌리를 찾는다

六朝時代의 鍊丹術

葛洪의 〈抱朴子〉는 內丹도 물론 다루고 있으나 보다 더 外丹에 기울고 있다.

중국 과학사의 세계적 권위자인 니덤(Joseph Needham)이 “중국 최고의 鍊丹術者”라 부른 葛洪의 책 抱朴子는 內篇 20권과 外篇 50권으로 되어 있다. 재미 있는 것은 그의 內篇은 道家의 鍊丹術을 소개한 것이지만 外篇은 오히려 儒家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사회 정치사상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葛洪은 어려서 집이 가난하여 나무를 해다 팔아서 공부를 했는데 그의 從祖인 葛玄에게서 鍊丹을 배운 鄭隱을 스승으로 하여 鍊丹을 배웠다. 抱朴子란 그의 號이기도 한데 그는 〈抱朴子〉 밖에도 92명의 神仙에 대한 전기 〈神仙傳〉등 많은 글을 후세에 남겼다. 또 그는 81세에 죽었는데 죽어서도 안색이 변하지 않았으며 몸이 유연했고 시체는 텅빈 수의를 드는 것처럼 가벼웠다는 전설을 남겼다.

道敎에서는 仙術의 정도에 따라 神仙이 되는 정도가 달라 天仙·地仙·水仙·尸解仙 등이 있다고 믿었는데 葛洪은 바로 尸解仙이 되었다는 뜻이었다.

〈抱朴子〉 卷二에 있는 것처럼 최고의 道士는 육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天仙이 되고 그 다음 수준의 道士는 名山에 노닐어 地仙이 된다. 그런데 下位の 道士는 일단 죽기는 하지만 나중에 보면 매미처럼 겹질만 남아 있는데 이를 尸解仙이라 한다는 것이다.

葛洪은 仙藥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丹砂, 다음이 黃金, 다음이 白銀 등의 차례를 이룬다고 쓰고 있다. 또 그는 金을 만들고 그것을 주성분으로 한 不死藥(金丹)

을 만드는 것도 소개하고 있다. 불에도 변하지 않고 땅속에서도 영원히 녹슬지 않는 金을 섭취함으로써 인간은 영원한 젊음(황금시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抱朴子〉에는 여러가지 丹藥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여 어떤 효험을 보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다. 예를 들면 그의 九丹 소개에 의하면 아홉가지 丹의 제조법이 비교적 자세히 쓰여 있고 그 효과로는 복용 7日만에 仙人이 되는 것에서부터 복용후면 창과 칼이 튀어나가는 것, 악귀나 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는 것 등이 열거되었다. 유감스럽게도 여기 나오는 약품 이름은 때로 분명치 않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얼마씩 어떻게 섞고 어떻게 가열하는지가 확실치 않아 오늘 그대로 실험해 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丹이나 金을 만드는 방법 이외에도 〈抱朴子〉에는 음식을 점점 적게 섭취하여 드디어 仙人이 되는 법, 부적을 달아 창과 칼을 피하는 법, 아예 투명인간이 되어버리는 遁甲術, 占하는 방식, 그리고 몸의 각부분을 단련하고 長壽를 위한 신체 단련법(오늘의 요가 비슷한 것)과 房中術 등이 설명되고 있다.

中國의 農耕文化

중국 역사는 근본적으로 農耕文化를 바탕으로 전개되었고, 따라서 동물·식물에 대한 관심도 우선 농업과 관련되어 일어났다. 또 醫藥品으로서도 동물, 특히 식물이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농업·의학등 실용적인 관심이 자연현상을 이해하려는 지적 탐구심과 결합하여 生物에 대한 지식을 낳았던 것이다.

- …… 우리는 흔히 現代 發明科學은 17世紀 이후 西洋에서 始作된 것의 延長으로 東洋의……○
- ……發明科學과는 關聯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
- ……이다. 發明科學史는 西洋의 것만이 아니라 東洋의 것도 包括하고 있기 때문이다. ……○
- …… 특히 東洋 發明科學史 중에서도 지금 우리의 血管속에 흐르고 있는 韓國 發明……○
- ……科學史의 背景을 이루는 中國의 發明科學의 傳統에 이해가 극히 重要함을 느끼게……○
- ……된다. ……○
- …… 이와 함께 佛敎를 통하여 우리의 傳統文化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印度의 自然……○
- ……觀과 우리와 비슷한 傳統에 속하면서도 재빨리 近代 發明科學과 技術의 수용에 成……○
- ……功하여 先進國으로 成長한 日本의 近代 發明科學의 발달상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
- …… 이에 本誌는 「韓國의 發明 그 뿌리를 찾는다」에 이어 「東洋의 發明」의 뿌리를 追……○
- ……跡해 보았다. ……○ <編輯者 註> ……○

대략 戰國시대에 쓰여져 前漢代까지는 완성되었다고 여겨지는 저자 미상의 백과사전 <爾雅>에는 생물에 대한 부분이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다. 草·虫·魚·鳥·獸·畜 등의 7가지가 그것이다. 아마 인간이 이런 식으로 생명체를 분류하던 사고방식은 원시시대까지로 거슬러 오를지 모른다. 실제로 고대유물인 甲骨文 속에 나타난 동물과 식물 이름은 이미 이런 방식을 예고하고 있다.

<爾雅>에 나타난 분류체계 가운데 植物은 풀(草)과 나무(木)의 두 종류로만 대별되어 있는데 반해, 動物은 벌레(虫)·물고기(魚)·새(鳥)·짐승(獸)·가축(畜)으로 더 상세히 나뉘어져 있다. 특히 가축을 별도로 나뉘어 놓은 것은 농업사회에서 가축이 얼마나 중요시 되었나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나 植物분류에서는 곡식이나 채소도 별도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이 책에는 100여 종의 草, 수 10종의 木이 포함되고 있다. 동물에 분류된 80여종의 虫에는 오늘날의 곤충 이외에도 연체동물도 포함되어 있으나 모두가 무척추동물이다.

魚로는 70여종이 분류되었는데 역시 물고기 이외에 개구리 등의 兩棲類와 爬虫類 그리고 연체동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하튼 지금의 찬피동물(冷血)이 여기 포함된 것만은 틀림이 없다.

나머지 동물이 모두 더운피(溫血)동물이 되는데 이들은 90여종의 새와 60여 종의 짐승, 그리고 가축의 세 가지로 나뉘어 있다. 이 분류에는 큰 무리는 없으나 가축은 엄밀히 따지면 새나 짐승에 속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책에는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다리가 달린 것은 虫이고, 다리 없는 것을 豸(치)라 한다”(有足謂之虫 無足謂之豸) 또는 “네 다리에 털 난 것을 짐승이라고, 두 다리에 깃이 난 것을 새라한다”(四足

而毛謂之獸 二足而羽謂之禽) 등의 표현이 있다.

또한 동물을 크게 나누어 큰 짐승과 작은 벌레라는 두 가지로도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 大獸와 小虫의 구분은 대체로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에 해당한다고도 보겠다. 특히 <爾雅>에는 大獸를 5종류로 보아 脂者·膏者·羸者·羽者·鱗者 등으로 나누었는데 이런 5分法은 그 뒤에도 계속되어 대체로 羽·毛·鱗·介·羸으로 분류되는 수가 많았다. 큰 짐승을 굳이 다섯 가지로 나누는 것은 물론 五行사상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새·짐승·물고기·거북마뱀·사람 등의 다섯을 일컫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생물을 보는 관점은 그뒤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한편 醫藥에 대한 관심에서 藥學, 즉 本草學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이것이 응용 생물학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약물을 本草라 부르기 시작한 것은 漢代 즙인 것으로 보이는데 <漢書> 藝文志에는 이 방면의 책 제목은 눈에 띄지 않는다. 물론 여러 책에 本草에 관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것이 전문적인 한편의 책으로 나오기 시작하기는 後漢代의 일이었다. 李贍之 또는 吳普의 本草書가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을 뿐 그 책들은 오늘 전하지 않는다. 그 결과 오늘날 전하고 있는 최초의 本草書는 <神農本草經>으로 되어 있다.

南北朝시대 梁의 陶弘景(452—536)에 의해 편찬된 <神農本草經>은 그 이름부터 전설적인 중국의 古代 황제인 神農氏가 지은 것처럼 가탁되어 있는 것으로 이미 後漢代부터 전해지던 책을 다시 편집해 낸 것으로 알려져지고 있다. 어려서부터 총명한 陶弘景은 다구 책을 읽었으며 그 가운데 그가 10살때 읽은 葛洪의 <神仙傳>에 크게 감명을 받았었다고 전해진다. <계속>